춘천, 인형의 왕국으로 변하다

정 명 숙 | 강원일보기자

춘천에가면인형극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그 인원은점점늘어나춘천의8월은색색의예쁜 인형들로빛난다.

햇살받은 의암호변을 감싸고 자리잡은 춘천인형극장. 그곳은올해십만명에가까운인원을끌어들이며 ‘ 춘천인형극제 의청년기를선언했다.‘ 공연예술축제 ’ 에서‘ 어린이축제 로 변신을 시도하며 춘천을 뜨겁게 달궜던‘ 제13회춘천인형극제 ’.

지난 8월9일부터 15일까지 춘천을인형의 왕국으로변신시켰던‘ 2001 춘천인형극제 는 8일젊은인형극인들의 향연인 ‘ 제8회 아마츄어인형극경연대회 를 시작으로본격적인 행사에들어갔다.

이번인형극제에는네덜란드프랑스러시아일본등해외 4개국7개극단을비롯국내전문극단 42개, 아마츄어 극단 22개 등 64개로 총 73개 극단이 무대에올랐다. 전국24개아마츄어극단이참가, 열띤경연을벌인아마츄어인형극경연대회에서는명지전문대학인형극단 ‘ 인형과 사람들 이 [미운오리새끼]로 영예의대상을 안았다. 이 인형극은 오로지 오리의 울음소리만으로극전체를진행, 짜임새있는연출과구성력, 독창성과실험성등모든 부문에서높게평가받았다.

국내 인형극의 질적 향상과 인형극인 육성을 위해 1994년부터 마련된 이 행사는 최근 인형극인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며 수준높은 인형극본과 인형극배우를배출하고있다는평.

행사첫날인9일오후5시춘천시내곳곳에서화려한 개막퍼레이드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 ‘ 춘천인형극제 ’는인형극단들의가장행렬과대형인형의행진을비롯다양하고도흥미진진한퍼포먼스가거리를무대로삼아펼쳐지면서축제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특히이날오후8시춘천인형극장축제무대에서 20m가넘는대형인형 40여개가 나오는창작인형극[봄내와코코바우]가행사장을찾은이들의탄성을자아냈다.

지난5월어린이날을맞아개관한인형극장‘ 물의나라꿈의나라 ’라는새로운공간에서 열리는첫축제로기대를모았던춘천인형극제는극장뿐아니라야외에서도다양한 공연들을 펼쳐 새로운 축제로의 방향을모색했다. 춘천인형극장주변의야외무대, 축제무대를만들어무료공연을시간마다올리고나무와분수광장이있는강원도립화목원에서자연과 어우러지는인형극을선보여어린이들의인기를독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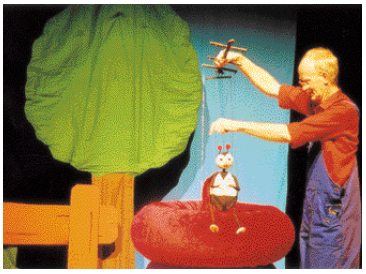
춘천인형극제 황순주 기획팀장은“ 강원도립화목원에서의 야외공연은 춘천인형극제가 어린이축제로 도약하는데확실한가능성을보여줬다 ”며“ 다음해공연기획에방향성을제시하고있다 ”고자평했다.

축제가열리는기간동안매일오후8시김유경류봉산탈춤, 노래를찾는사람들, 한국마임협의회의 마임, 정석모의 마술쇼, 김대환 · 이혜경의 소리춤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축제무대에 마련돼 한여름더위를씻어줬다. 또한매일 오후 10시춘천인형극장박물관동에 마련된 노천카페에서는 코코바우카페를열어 인형극인 깜짝공연, 인형 경매 등 인형극인들과일반인들이거리감없이함께참여할수 있도록해시민과관광객들의호응을 얻었다.

무엇보다도인형극의주관객인어린이들을위한인형공방, 야외미술시간, 쓰레기인형교실, 전시 · 참여프로그램을곳곳에서진행, 방학을맞아가족과 함께행사장을찾았던어린이들에게체험의기회를제공하며축제의 주인공으로 세우는데 성공했다. 또 인형극을사고파는 견본시장을 운영, 한국의 인형극을 세계로진출시키기위한노력을기울였다.

춘천인형극제국제팀장을맡았던전정은씨는 “ 한



국의공연중외국공연자나 스탭들의 흥미를 끄는 작품들에 대한 문의가 계속 이어졌다며" 세계무대에 서기 위한 한국인형극단과 인형극인들의 끊임없는 자기노력이필요한것같다"고말했다.

춘천인형극제집행위원회에 따르면 15일까지 극장관객수는 총 15,000여명, 야외공연을포함한 총관객은 91,000여명에이르는것으로집계됐다. 이는지난해 80,973명에비해1만여명늘어난것으로춘천인형극장 등 곳곳에서 벌어진 야외 무료공연이 관객증가의 주요원인인것으로분석됐다. 여기에춘천시내대형마트노선을그대로따라셔틀버스를운행한점이춘천시민들의 연일 발걸음을 잇는데 큰도움을 준 것으로평가됐다.

그러나행사장소에대한문제로춘천인형극장옆에위치한강원청소년수련관과의 마찰을풀지못한데다 공연자들의 사정으로 공연장소와 작품내용이 갑자기 변동돼 관객들이혼란을 빚었다. 특히 휴일이었던 15일지방에서 모여든관객이넘쳐선착순으로 관객을 관리했던 극장공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먼길을 찾아온 관객들의 불만을 해결하지 못한 점이아쉽다. 더구나 춘천인형극장 박물관동 코코극장과 바우극장의경우 70명수용인원에도 냉방시설이 미비하고 안전대책이 없어 관객들의 원성을 샀던 점은 앞으로개선해야될부분으로남는다.

관람객 조성희씨는" 공연일정이 제작된 인쇄물과 변동사항이너무많아계획대로공연을볼수없었다 "며" 평소볼수없었던다른 나라의인형극을보기위해 휴가기간에 맞춰 왔는데 외국 공연팀의 공연이적은것도아쉬움으로남는다 "고했다.

이제춘천인형극제는춘천시의축제도, 춘천인형극제집행위원회만의 축제도 아니다. 휴일 서울에서 오전7시에출발, 6시간동안꽉막힌경춘선을 마다않고 달려오는가족관객과매진된극장앞에서눈물을머금는어린이관객들이있기때문이다.

강준혁 춘천인형극제집행위원장은 " 춘천인형극장 개관이후 첫 축제라 관심과 기대가컸으며 이에 만족하지못한부분이있을수있다고생각한다 "며" 춘천인형극장을중심으로축제공간을확실히구분하고가족과함께 하는진정한어린이축제로만들어나가겠다 "고 밝혔다.

사진 / 송 성 진 | 강원일보사진부기자